

보도일시 (인터넷) 2023. 7. 14.(금) 06:00,
(지면) 2023. 7. 14.(금) 석간

배포 2023. 7. 13.(목) 14:00

수품원-이마트, 손잡고 수산물 안전 알린다

- 7. 14.(금)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원장 홍래형)과 이마트(대표이사 강희석)는 7월 14일(금) 서울 중구 이마트 본사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마트는 수품원의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의 유통에 적극 협력하고, 수품원은 이마트 매장을 통해 방사능 검사 결과 정보공개, 방사능 안전필증 지원 등 해양수산부의 방사능 안전 관리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마트의 방사능 분석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품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이마트가 자체로 구축한 방사능 분석실의 분석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이마트에서 ‘민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수품원이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승협 이마트 지원본부 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리나라 식품 유통업계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산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 약 7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 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국내 최대 식품 유통 업체인 이마트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다른 유통업체와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책임자	과 장	강거영 (051-400-5750)
		담당자	사무관	김재훈 (051-400-5780)